

창사 68주년에 부쳐

호남 언론의 종가(宗家),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사 68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952년 6·25의 초연(初演)이 채 가시지 않은 폐허 위에 '불편부당'(不偏不黨) '문화창달' '지역개발'의 3대 사시(社是)를 기치로 고고성(呱呱聲)을 울린 광주일보는 지역 언론의 선구자이자 현대사의 증인으로서 그 본분을 곳곳이 수행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예순여덟 성상(星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호남이 넘어야 했던 역사의 파고(波高)가 그만큼 거세고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 혁명 등 격동의 물결을 헤쳐 온 광주일보가 슬한 도전과 역경에도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사 68주년을 맞아, 강한 자의 횡포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따듯이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정신으로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격변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무엇보다

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우리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벌써부터 가이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등 지역 중추 기업들은 수출길이 끊겨 있따라 휴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지자체 및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물 경제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안정이나 일자리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또한 좀 더 고통을 감내하고 코로나 위

도약의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선거 결과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

하지만 새로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호남 정치를 복원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재선인 데다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지역 현안을 챙기는 것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독점 구도가 다시 형성되면서 과거 되풀이됐던 일당 체제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지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 준 의미를 겸허히 새겨 과거처럼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오만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 간 적극적인 연대와 부단한 도전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심

의로지원단을 파견하고 대구 환자들을 위해 병상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80년 5월 공동체가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대동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 조사관 채용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단발포 경위와 책임자 규명,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및 헬기 사격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일보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더 이상 5·18 왜곡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도 힘을 보탬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정통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광주일보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사실 보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심층적인 논쟁을 통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서, 진실을 찾는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해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키우고,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68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길 것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흔하할 '홍이 신문의 위기'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와 알찬 정보로 광주일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광주일보 창사 68주년을 자축하면서 그동안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경제 위기 속 '연대와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가에서 보여 준 연대와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야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은 어제 4·19혁명 6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살리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기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대면 접촉으로 이뤄졌던 일들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 수업, 원격 진료, 온라인 수출 상담 등 비대면 라이프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개방성과 투명성, 수준 높은 검진·방역 역량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부심을 갖고 위기를 새로운

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다시 선택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은 네 번째 '민주 진영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18석, 전북 9석 등 호남 28개 선거구 중 27곳을 석권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국민의당에 16석을 내주고 단 한 석을 건지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완전한 정치 세력 교체를 이뤄내면서 호남의 맹주로 재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3선 이상 지역 중진 의원들은 모두 국회 진입에 실패한 반면 초선 의원 13명이 대거 당선되면서 세대교체도 이뤄졌습니다.

장하면서도 변방에 머물러 온 호남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대안 마련은 물론 파국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 군공항 이전, 방사광 가속기 유치, 한전공대 건립 등 산적한 지역 현안 과제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전야제 등 주요 기념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오월 정신을 계승하고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80년 5월 처절한 고립을 경험했던 광주 시민들은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에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독일 라이프치히의 성토마스교회 건립 80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마태 수난곡' 연주 실황을 담은 영상물의 한 장면. 예수가 자신의 열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다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저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라며 걱정스레 묻는다. 그런데 각각 독창과 중창으로 예수와 제자들을 연기하는 이 오페라적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합창에서 갑작스럽게 시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합창(작곡가 바흐는 여기서 부르기 쉬운 찬송가풍의 코랄 선율을 썼다)의 가사는 이렇다. "지옥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참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장면의 시점 전환을 표현하기 위해 영상을 담은 카메라는 합창단과 오케스

세월호 수난곡

트라가 위치한 2층 성가대석을 한 프레임으로 잡은 뒤 천천히 '좀 아웃'하면서 1층 예배석에 앉아 있는 청중들을 포함한 성토마스 교회 실내 전체를 비추어 보여 준다. '참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할 때의 '나'는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원만이 아니라 현장의 교회에서 그리고 영상물을 통해 이 '음악적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라는 뜻에서다.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참담한 심정을 그린 독창곡('마태 수난곡'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상적인 바이올린 독주에 실리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보다도, 이런 짧고 단순한 코랄 합창 장면이 주는 감동이 있다. 그것은 음악과 노래에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참여적 공감의 힘에서 비롯된다.

예수의 죽음이 누구랄 것 없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 코랄 합창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필자에게조차 모종의 종교적 숭고미를 느끼게 해 준다. 맹목적 도덕규범을 강제하는 '원죄 의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서양 기독교의 좀 더 보편적인 윤리를 특징짓는 것은 이러한 자기성찰적 책임 의식이 아니었을까?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이번 달에 새로 출간된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이

라는 제목의 책을 읽다가 고(故) 박시찬 학생의 아버지 박요섭 씨가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바로 기독교 '수난곡'을 떠올렸다.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좋은 데 갔으니까 이제 그만 가슴에 묻으라고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는 2천 년 전에 죽었는데 왜 아직도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을 예수에 빚드는 게 합당한가 하는 물음은 합당하지 않다. 물론 예수와 세월호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사건의 맥락 속에서 죽었지만, 무고한 희생을 부른 우리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나'의 윤리적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죽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 더 나은 사회와 올바른 삶에 대한 윤리적 각성의 보편적 요구가 없다면, 예수의 죽음조차 2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되새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나와 같은 비기독교인에게는.

이 점에서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책 속에 담긴 오디오 CD를 통해 '416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것은 '마태 수난곡'의 코랄 합창을 듣는(내면의 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체험과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그들의 노래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에 앞서, 이 땅의 기성인으로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또 다른 '엄마와 아빠'로서, '나'의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새삼스러운 것은 음악과 노래의 힘이 다. '416합창단'은 18명의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무엇이 그들을 노래하게 했을까? 책 속에 글로 참여한 소설가 김애란의 표현대로 '누군가의 노래를 듣는 건 그 사람의 숨소리를 공명시켜 듣는 일'이며, 나아가 합창이란 '나를 에워싼 사람들의 숨소리를 열심히 듣다 적절한 시간에 자기 숨소리를 엮는 일'이다.

2014년 12월에 작은 노래 모임으로 시작한 '416합창단'은 지난 5년간 전국구의 여러 장소에서 270여 회에 달하는 합창 공연을 통해 그들과는 다른 처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숨소리를 듣고 연대하며 거기에 자신들의 숨소리를 엮었다. 그것은 치유받으면서 동시에 치유하는 미적 상호소통의 과정이었다. 소설가 김훈은 이들의 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슬픔을 감싸서 슬픔을 데리고 슬픔이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기고



이병택 광주전남혁신연구회 회장·전남대 교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온 나라, 온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은 칠할같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와 있지만,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이니 이제 곧 터널 끝의 빛이 보일 것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에 대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시민 자율과 글로벌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길 아니면 '강화된 정부 권한 하에서 성과 도시(Walled city)로 고립되는' 방향일지와 같은 큰 틀의 답문도 있고, 본격화된 비대면(untact) 현상이 노동, 교육, 레저, 금융, 종교, 헬스케어 등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이

지역 주도 지역 혁신을 준비할 시기이다

후' 눈여겨볼 것은 변화의 흐름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거대 도시에 집중된 삶의 형태가 분산되고 국가별 분업이 약화되면서,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국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상당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지역 제조업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 산업 진흥 정책은 대체적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RIS)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테크노파크,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혁신도시 등이 대표적 사업들로, 지금까지 중사자 수, 생산액 등 여러 지표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이 기간 동안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어 RIS 정책이 지역 혁신과 경쟁력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새로운 지역 혁신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 간 경쟁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 스스로 자기 장점과 혁신 역량에 근거한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스스로의 책임 아래 추진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혜택과 책임이 모두 지역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 혁신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준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의 사회·문화·산업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혁신 정책은 현재의 상황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수립되는 것이 성공 가능성, 효율성,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 혁명이 다른 (기존) 산업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므로 현재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고민해 온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발전 기구들을 설립하고 지역의 자체 혁신 역량에 집중하는 스위스 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기획 평가 기구와 논 의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기회가 온다. 상대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이 현실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혁신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 지역도 스스로 장점과 역량에 근거한 혁신 발전 전략과 실행 정책을 도출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를 설득하여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無等鼓

고대 그리스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은이 섞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목욕탕에서 발견해 냈다. 탕 속에 몸을 담그다가 문득 '왕관을 몰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 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때 그는 '유레카!'('알아냈다!')라고 외치며 열광을 지시하며, 앞으로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와 알찬 정보로 광주일보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광주일보 창사 68주년을 자축하면서 그동안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가 대부분이다. 통찰에 이르기 위한 전제 조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르키메데스처럼 해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오매 불망 집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지난 16일 새벽, 몇 달 간의 선거 과정을 되새기며 TV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은 몇 가지 반짝이는 통찰을 얻었다. 대다수 국민이 현 정권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표를 통해 4년마다 민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얻게 되는 통찰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는 없다. 또 모든 통찰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통찰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는 촛불 혁명 이후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총선 당선자들이 4년 후 국민으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들 덕분에 삶이, 세상이 더 나아졌다"며.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유레카

어린 '광란의 호르몬 세레'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최근 제시됐다. 미국 드렉셀대 과학자들이 '창조적 사고와 행위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중독성 약물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준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깨달음의 순간'으로 알려진 창조적 통찰이 인간의 기본적 즐거움에 반응하는 뇌 보상 체계를 '폭발적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찰이 이뤄지는 과정은 대체로 비슷하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이 섬광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경

장애인의 날, 따뜻한 눈길은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 오다가 198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람마저 배타적인 차별 속에 고통 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소수이자 약자인 장애인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줄 수 있을까?

플라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라고 했다. 부처님도 아름다운 미녀의 몸은 똥, 오줌, 가래, 고름이 가득 들어 찬 가죽에 불과하여 몸으로 생기는 탐욕조차 허망하다고 하였다. '장애'에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처적격하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편타당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가치관 또한 장애나 다름없는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여 살아가는 데에는 다 삶의 뜻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이치를 겸허한 마음으로 되새겨 보는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투기형·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무 관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